

# 광주 어등산 개발 '스타필드' 제안 신세계 단독 응모

### 2030년까지 1조3000억 투자해 휴양·레저·쇼핑 시설 건립 목표 市, 26일 우선협상자 선정...60일 협상 후 연내 민간개발자 확정

18년간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를 제안했던 신세계그룹의 단독 응모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5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마감한 제3차 공모에 신세계프라퍼티 한 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방향에 대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시민 발표 이후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에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최초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도 사업 제안 기회를 주고 평가해 우수한 개발자를 선정하는 제3차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모 기준을 적용해 상가 시설 면적은 최초 제안보다 축소하고 휴양·레저·문화시설을 대폭 늘려 응모했다"며 "최신 휴양·레저·문화·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설립해 연 3000만명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광주시와도 적극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 응모함에 따라 오는 24일 광주도시공사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단독 응모인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계획(280점)·사업수행 능력(230점)·공공 기여 방안(280점)·관리 운영 계획(110점)·토지 제안 가격(100점) 등을 평가해 총 85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상가 시설 면적 11만6000㎡(3만 5000평) 이하 조성, 휴양·문화시설 등 18만㎡ 이상 조성, 270실 이상 숙박 시설 의무 설치 등을 하도록 했다.

수족관·수영장·산림휴양시설·미술관·박물관·자동차 아영장 등 관광단지로서의 면모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비중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이행보증금도 토지·상가 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10%로 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통보한 후 60일 간 협상 기간을 거쳐 연내에 민간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등산 개발 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해진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 부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삼남건설(2006년), 금광기업(2009년), 모아건설(2010년), 호반건설(2018년), 서진건설(2022년) 등 사업자들이 잇따라 포기하는 과정에서 '돈 되는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 광주"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에 참석해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현수막제로! 쾌적한 광주' 손팻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 대표 신생기업 5곳 글로벌 진출 지원

### 市, 창업기업당 최대 2억원

광주시가 지역과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15일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거대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5개 회사를 'G-유니콘'으로 선발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창업 기업 5곳을 선발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실증(PoC) 기회 제공, 투자 유치,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애틀 소재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전에 실증해볼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G-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차량용 고정형 라이더(LiDAR) 개발·제작 기업 ㈜에스오에스랩, 비접촉 동물 개체 생체정보 분석 인공지능 딥테크 기업 인트플로우㈜이다. 폐실리콘 활용 질화규소 불 제조 제품화 기업 ㈜정단랩, 에너지절감 냉각 소재 기술기업 ㈜포엠틸, 글로벌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획과 제작 기업인 ㈜스튜디오버튼 등도 뽑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 영산강 코스모스길 따라 '가을 산책'

### 극락~서창교 10km 구간 조성

"영산강 코스모스길 따라 가을정취 만끽하세요." 광주시푸른도시사업소는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왕복 10km의 영산강 제방도로에 이달 초 개화를 시작한 삼색 코스모스가 중하순께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영산강 코스모스꽃길은 광주시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난 7월 하순부터 제방도로 갖길에 씨를 뿌리는 등 꽃길을 조성했다. 이후 제조작업, 밀시모 숙여주기, 손질하기, 불주기 등 유지관리를 통해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꽃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푸른도시사업소는 해마다 시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안겨주기 위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정원 확대에도...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망 어둡다

### 정부, 19일 규모·방식 등 계획안 발표...확대 폭 1000여명 수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제외 전망...김영록 지사, 교육부에 건립 요청

정부가 이번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이 전남도내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의료 시설 및 인력이 가장 열악한 전남도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전남도민의 의료기관 역외 유출이 더 심해지고,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여지가 사라지는 등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확대 폭은 1000명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과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하면서 근거를 쌓아왔다.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

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야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 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의사협회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께 주장해온 국립 의대 설립과 그에 따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대한의사협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와 대정부 건의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해왔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골든타일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다. 한국은행 목표분부에 따르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의료기관 역외지출 비중은 12.8%에 달해 전국 평균(9.5%)을 3.3%포인트 상회했다.

이상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기존 의대의 증원보다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법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